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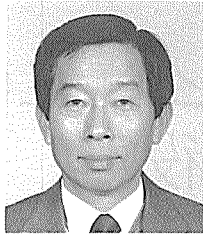
MIS와 한강종합 개발

아침저녁으로 강변도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면서 한강 개발의 고마움과 후손들에게 훌륭한 자랑거리로 생각해 보기도 한다. 이 시대의 환경오염을 거의 극복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어릴적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놀던 때의 맑은 물을 다시 보는 감격과 긍지를 가져 보기도 한다.

이럴 때마다 경영자의 구상과 의지가 모든 조직과 주위의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각 기업이 애송하는 MIS 도입이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원가 절감에 획기적인 사실로 현실화 한다는 것을 한강개발의 맥락에서 찾아주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다.

그간 십수년을 전산분야에 종사하면서 여러 경영자(관리자)들을 뵈올 수 있는 기회와 동료 전산실장들의 얘기를 들을때마다 MIS 구축은 한강개발과 같이 장기간('81. 10. 23~'86. 9. 10)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철학이다.

경영자의 구상으로 시행 분부를 하신 날('81. 10. 23)을 기점으로 계획수립('82. 6~'83. 5)과 착공('82. 9. 28) 그리고 그 감격스럽던 준공('86. 9. 10)까지의 과정을 인내로 감수 해 주었던 시민들의 “삶” 같이 기업도 그러한 MIS 계획 구상에서 시작과 완성이 될 때까지의 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가지 잡다한 부수작업이 무수히발생되고 오히려 전산화하지 않을 때 보다 더 불편스러워 하는 직원들



최재연

대한석탄공사 전산실장

이나 중간 관리자들의 호소를 들을 때마다 한강개발 과정에서 일어났던 무수한 사건들과 불편의 과중을 생각하고 참고 꾸준히 추진하여 완성이 되는 날 한강개발이 우리에게 준 능률과 경제성, 환경개선, 시민의 편의성 등을 우리는 기업내에서도 똑같이 맞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내의 MIS 도입 및 추진은 계획과 착수 완성을 거치는 과정에서 경영자와 중간관리자, 실무자 모두가 인내하며 MIS 추진에 열성을 다할 때 한강종합개발 준공에서 느끼는 감격을 기업내에서도 맞볼 수 있을 것이다.